

***랜드스케이프 건축개념의 재유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ategorized the architectural notion of Landscape

윤갑근* / Yoon, Gab-Geun
김기완** / Kim, Ki-Wan

Abstract

As a result of imminent recognition on nature from modern world, the need for the combination between architecture and nature has been raised as another topic in architectural arena, and this kind of work is being conducted under the notion of Landscape. As the term 'Landscape' emerges as the key word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Landscape' begins to transcend the mere meaning of landscape architecture[gardening]. The word, Landscape, has gone beyond the meaning of mere landscape, or rural vista one-dimensionally, and, after having introduced the attributes of nature into building activities, has emerged as a notion trying to form 'the architecture as landscape.' Together with these, 'Landscape' is expanding as a notion having various layers. The notion's, 'Landscape', occupying the significant positio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has been a recent phenomenon over 1980-1990s, and its category of practice has not certain limitation, rather it has started simultaneously from various areas. This study, before reviewing the architectural notion of Landscape by studying the Landscape notion and its various embodying methods being show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eatures of Landscape notion shown in various directions(ways), being influenced by the four Landscape types presented by Eduard Bru and the currents of the times, we can see that, though the features are somewhat similar, they are classified and explained as different types respectively. So, we are able to recategorize the features into 6 domains in this study.

키워드 : 현대건축, 재유형화, 랜드스케이프 개념

Keywords : Contemporary architecture, Recategorize, Landscape no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연'에 대한 절박한 인식으로 인해 현대 사회는 '자연'과 '풍경'에 이분법적 구분방식을 떠나 건축과 조경의 경계를 허물게 되었으며 건축과 자연의 결합에 대한 요구는 현대 건축계의 또 다른 화두로 대두 되었다. 랜드스케이프라는 단어는 경치, 전원풍경을 의미하는 1차적 의미 '조경'이라는 영역을 나타내는 것에서 나아가 자연의 속성을 구축행위에 도입하여 '풍경으로서의 건축'을 생성시키고자 하는 개념으로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층위를 가진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같은 시도는 해체주의 이후 아방가르드건축가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벽과 바닥의 구조를 탈피하거나 수평으로 확장해 건축물

스스로 대지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의 영향 하에 랜드스케이프의 개념이 적용된 다양한 건축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랜드스케이프 건축물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사례비교·분석을 통해 현대 건축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개념 재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데 있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랜드스케이프 건축이 그 개념의 실천적 범주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랜드스케이프를 개념 어휘로 사용한 작품을 선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 대상으로 작품을 선정하는데 있어 일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연구 대상의 한계를 짓고자 한다. 1997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New Territories, New Landscape' 전시회에서는 현대 건축에서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언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전시회는 전면적으로 랜드스케이프

* 이사,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 정회원,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술학석사

*** 본 연구는 2005년 조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개념에 집중하여 작품들을 선별하였다. 따라서 이 전시회에 참여한 해외 건축 작품사례들을 중심으로 현대 랜스케이프 건축적 특성들을 분석 하였다.

2. 랜스케이프 개념의 이론적 고찰

2.1. 랜스케이프 개념의 변화

랜스케이프는 현대건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적인 용어로서 풍경, 경치, 경관 또는 조경 등의 의미로 해석되어 풍경이나 조경개념의 일부로서 느껴지지만 이것은 건축을 둘러싼 물리적인 주변 환경과 주변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이기도 하다.¹⁾ 랜스케이프 개념은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장르에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18세기 픽처레스크 개념을 바탕으로 한 영국의 풍경식 정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건축에 사용되었다. 랜스케이프 개념은 시대적 상황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각기 다른 건축적 이상향의 변화와 함께한다. 17세기 등장한 랜스케이프는 18세기 별장이나 궁전의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픽처레스크’(정원)의 개념으로 건축 분야에 흡수되었으며 그 이후 ‘조경’으로 독자적인 장을 구축하면서 수목의 절삭기법이나 공간구성방식을 통해 발전하였다. 미국의 대중 녹지대는 자연주의 표현형식에만 의존하고 보다 직접적 미국적인 것은 1858년 뉴욕 센트럴 공원과 약10년 후에 세워진 부루클린 프로스펙트 공원을 각각 설계한 프레드릭 로우 옴스테드와 칼버트 보의 원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면-18세기 영국의 랜스케이프 정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형식적으로 조성되어진 화단과 몇몇 테라스를 포함하는 제한된 구역을 제외하고는 자연주의가 우세하였다. 한편, 1970년대 출현한 대지예술은 현대 건축가들로 하여금 현대의 변화하는 위상에 대응의 실마리를 랜스케이프에서 찾으려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는 비록 땅과 재료에 주목한 것이었지만 랜스케이프를 목가적인 장면개념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힘의 장으로써 대지예술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선구적 건축학교를 중심으로 랜스케이프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게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담론이 형성된 것은 최근 10년 정도이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거론된 랜스케이프 개념이 정착된 것은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랜스케이프 개념은 문화적 장치로써 주변 환경을 배경으로, 건축을 독립적인 오브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속의 일부로써 작동하는 장치로 보는 것이다. 즉 랜스케이프 건축은 물리적으로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대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사물과 사물의 공간을 관계 맺는 역

1)박지영, 알바로 시자 건축의 ‘땅’에 대응하는 공간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0, p.14

할로 주변상황과 위치하는 대지의 일체화되는 건축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2. 랜스케이프 개념의 현대적 의미

1900년대 후반 들어서 랜스케이프라는 용어는 ‘건축적 경관(Architecture landscape)²⁾이라는 개념으로 건축분야에서 사용되며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건축적 경관’은 기존의 ‘자연적 경관’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의 경관이 된다. 현대 도시에 있어서 건축적인 개념으로서 랜스케이프는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 푸른 환경, 이상향 등의 1차적인 의미에서 널리 영향을 미치는 장, 생태적이며 경험적이고 시적인 것이 뒤엎혀있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것은 ‘관계성의 장’을 뜻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즉, 랜스케이프는 건축의 오브제화를 거부하며, 건축을 단지 ‘환경을 점유’하는 구조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적 관심이 주인으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도시의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건축, 건축과 건축 사이의 공간, 점유와 점유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옮겨진 것이며, 부분과 전체에 대한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랜스케이프 의미는 조경적 차원의 자연적 경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건축적 이해의 태도로서의 지각 방식을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랜스케이프 개념은 현대 도시를 해석하는 코드인 복합성과 불확정성에 대한 유동적인 코드로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도시와 자연, 문화 등의 통합적 개념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2.3. 랜스케이프의 다양한 개념

(1) 랜드스페이스 Landspace

1) 한스 샤로운의 landscape

건축의 ‘이벤트’와 ‘일시성’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한스 샤로운이다. 그는 건물의 개념이 미학적 공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콘서트라는 이벤트로부터 시작된다. 오디토리엄의 형태는 조경의 개념에서 착상된 것이며 오디토리엄은 계곡을 의미하고 그 밑바닥에는 오케스트라가 배치되며 솟아오르는 포도원이 그 주위를 감싸는 것이다. 이 조경에서 천장은 곧 하늘의 풍경을 의미한다.³⁾라고 설명했다. 이 개념이 의미하는 것은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능이 아닌 하나의 ‘사건’, ‘이벤트’로 보고 오케스트라 위치와 객석은 바로 음악 연주와 음악감상 활동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하나의 ‘바닥’을 깔 개념이다.

2)랜스케이프 건축의 개념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되고 있다. 이것은 건축에 있어서 자연의 요소가 중요하게 등장한 것을 의미하며, 자연의 속성을 이용하여 ‘풍경’을 생성시키는 건축적 행위를 의미한다.

3)플로리안 베이겔, 외부를 실내로, 건축과 환경, 9605, p.118

한스 샤로운의 국립 도서관의 독서 테라스에서는 건물에 도입한 랜드스페이스 개념이 더욱 발전되어 나타난다. 이것이 도시화된 랜드스페이스이다.

2) 랜드스페이스 개념

랜드스페이스⁴⁾는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이다. 이곳은 개념의 상대성을 위한 장소이며 해방의 공간이다. 또한 랜드스페이스는 랜드스케이프의 추상적 개념이자 랜드스케이프의 본질이기도 하다. 즉 랜드스페이스는 '대지와 자연의 인공화'로서 랜드스케이프의 건축적 해석⁵⁾으로 말할 수 있다. 건축적 랜드스페이스는 항상 대지라는 보다 거대한 맥락으로부터 그 존재이유를 얻으며, 따라서 랜드스페이스 설계에서는 땅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풍경의 추상적 개념이며 대지와 자연의 인공물이자 자연의 본성이기도 하다.

(2) 지형적 건축

1) 지형적 건축의 의미

넓은 의미에서 대지 개념을 포괄하는 경관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두 대도시와 경관에 대한 재평가와 도시 혹은 건축과 경관의 융합과 결합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랜드스케이프 건축으로 지칭할 수 있으나 이것 또한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건축의 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형적 건축을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등가로 규정짓기에는 애매하고 광범위하다. 최근 작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형적 형태의 건축물을 지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보다 한정적이고 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요구된다.

2) Charlds Jencks의 지형적 건축

Charlds Jencks는 1990년대 초기 대표적 건축물로 Eisenman의 Aronoff Center, Diniel Libeskind의 Jewish Museum, Frank Gehry의 Bibao Museum의 세 건축물을 언급하면서 복잡성의 과학을 반영하는 복잡성의 건축으로 '도시 계획'과 '대지예술'과 관련된 현 시대의 추세이다. 규모면에서 지나치게 기념비적이지 않고 진부하며 억압적인 표현이 아니면서 도시 안에서 커다란 규모의 건물을 다루는 방법들이다. 이러한 방법들 중 하나가 통합된 경관으로서의 건축인 '지형적 건축'이다.⁶⁾ 이는 현대 건축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은 지형적 형상의 건축을 대변하기에 적절한 어휘가 될 것이다. 실제로 랜드스케이프 사전적 의미에는 지형적 건축의 의미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

3. Eduard Bru의 유형분류와 시대적 흐름에 따른 표현 특성

3.1. Eduard Bru 유형분류에 따른 구현방법

Eduard Bru는 1997년에 열린 'New Territories, New Landscape' 전시회에서 현대 건축이 랜드스케이프 개념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침투', '랜드마크', '경계', '내부의 풍경' 등 4가지의 유형⁸⁾으로 범주화 하였다. 건축의 도시적 형태는 전통적으로 도시를 통해 이해하던 바를 넘어서며 세워진 오브제로서의 건축-도시-영토의 범주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말하고 '내부의 풍경'은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된다.⁹⁾ 이렇게 분류한 방식은 맥락적 상황, 프로젝트의 조건, 형태적 특징 등에 의거한 유형 구분이 구현된 방법은 <표 1>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3.2. 시대적 흐름에 따른 특성

(1) 복잡성 과학에 따른 불확정성 개념의 추구

1) 복잡성 과학의 대두

사회와 문화의 급격한 변동은 기성의 생활방식과 사고 양식에 위기로 체감되곤 한다. 이러한 위기감의 해결책으로 과거의 사회질서와 사고유형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이론들과 사상들이 요구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과학이론이 출현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이질적, 다원적, 다중심적인 복잡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불확정시대로 대변되는 이 시기는 베르그송, 화이트헤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20세기에 이르면 고전적인 형태의 기계론과 탈기계론의 대립은 사라지고 기계론도 옛날의 기계론이 아니고 탈기계론적 사유들도 옛날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 인식의 흐름에 따라 현대 과학은 자연계를 더 이상 부분으로 쪼개는 환원적 접근 방법에서 탈피하여 복잡성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발표된 이후 카오스 이론, 프랙탈 이론, 급변론과 같은 복잡성을 설명하는 과학의 새로운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고전과학의 기계론과 환원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복잡성 이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형이 아닌 비선형, 부분이 아닌 전체, 기계론이 아닌 유기체론, 환원이 아닌 종합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려는 과학의 새로운 흐름이다. 이러한 복잡성 과학 이론들은 건축에 있어서 프로그램과 동선 등의 불확정적 특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8)영토적 스케일이란 물리적인 의미로 거대한 크기의 볼륨, 혹은 거대화 되는 프로그램을 지니는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사고의 범위가 확장됨을 의미한다.

9)Eduard Bru, The Long-Distance Gaze, New Territories New Landscape, Actar, 1997, pp.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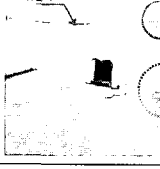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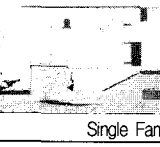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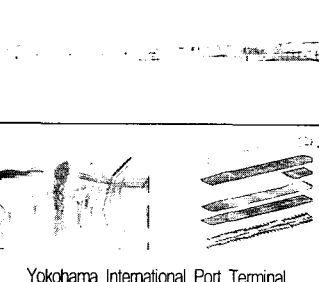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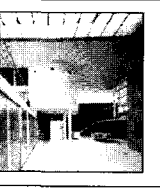


4)대규모 건축물의 랜드스케이프화 경향에 대해서 건축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랜드스페이스 개념을 사용한다.

5)김종규, 랜드스페이스, 건축과 환경, 9605, p.128

6)Charlds Jencks, Landform Architecture-Emergent in the Nineties : Architecture Design Vol 67, 1997

7)유승범, 현대건축에서 지형적 건축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논, 2002, p.3

<표 1> Eduard Bru 유형분류에 따른 랜드스케이프 개념 구현방법 사례분석

유형	개념의 구현 방법	작품 사례	개념 표현 방법의 특성
침투	범주의 전이	 Brazilian Sculpture Museum의 단면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의 전이-12x60m의 스펠로로 단순한 볼륨을 지닌 매스와 대지에 의해 한정된 외부공간이 주된 공간. 이 박물관의 외부 공간에 있어서 건물의 매스는 단지 햇빛을 가리고 공간의 상부를 덮어주며 아래로는 공간을 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때의 '침투'는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 사이에 존재하고 대립 구조를 빈공간void을 통해 모호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계를 상실시키고 있다. 즉 매스와 보이드의 관계가 서로 바뀌면서 박물관 매스의 볼륨은 도시에 제공된 공공공간으로 변형된 것이다.
	도시와 자연의 맥락 확장에 의한 영역성 침투	 The Grand Arche Garden	외부공간구성에 context인용-자연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맥락적 차원의 인용을 시도한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교외 지역을 보다 컴팩트하게 바꾸고자 시도되었다. 도시 외부를 둘러싼 자연의 질서를 외부공간구성의 컨텍스트로 차용하여 Grand Arche 지역과 파리 사이의 축을 완성시킨다. 이는 '자연'을 외부 공간구성에 있어서 context로 자연을 '침투'시킴
랜드마크	실재와 가상의 재현	 Slow House TV와 창의 배치에 관한 플리주  영상장치의 도면	인접공간의 물리적 연속성에 가상성 침투-바다를 향해 열린 창의 한편에는 조작 가능한 카메라와 이를 통해 영상을 비추는 모니터가 놓여 있다. 거실에서 수평선을 향한 전기적 영상은 대형 창문을 통해 보이는 실제의 장면과 동시에 볼 수도 있고 대비시켜 볼 수도 있다. 연결되어 펼쳐지는 두 가지 수평선의 모습이 혼합되어 제시되는 전경은 합쳐져 전개되며. 대형 창문의 틀은 「자연」을 대상화 하여 소유할 수 있는 인공물로 변화시킨다. 그 결과 대형 창문은 건물 외부의 장면을 하나의 장면으로 변화시키고, 거실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두 가지 재현방식-실재와 가상의 이미지-가 병치되어 감각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의도하는 바는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통해서 실제적인 Context를 외면하고 인접공간의 가상적 환기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 물리적으로 연속된 영역에서 뿐 아니라 비연속적으로 분리된 두 영역에서도 개념적으로 연속된 인접공간을 상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도시 풍경을 차경	 Bestegi House	주택에서 도시의 풍경을 끌어들이며 맥락적 스케일 확장-옥상은 시각적 조작으로 필요 없는 대상들을 제거하고 파리 시내 풍경을 사유화한다. 옥상정원에서 거울의 위치는 내부와 외부경계의 모호함을 더욱 강화시킨다. 에펠탑, 개선문과 같이 풍경으로 펼쳐지는 파리의 랜드마크들은 구성의 오브제로 전환, 오브제들은 난간벽에 조작되어 질려져 나간 듯한 인상을 줌. 영토적 스케일의 지향은 건축물의 물리적 크기의 거대화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건물 안에서 도시적 풍경을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거대한 스케일의 풍경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계	대지의 연장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지향-지형적 건축	 Single Family House	주택에서 자연으로 영토적 스케일 확장-대지의 연장을 지향하는데 구현 방식에 있어서도 대지의 연장으로 주거 건물을 다루고 있다. 단면도를 통해 이러한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면으로 이어지는 지하층과 하늘과 인접한 지붕은 자연의 지상 레벨로 인식되어지는 공간이다. 두 개의 레벨에 의해 대지의 연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장치로서 원거리 자연의 풍경을 지향하고 있다.
	물리적 경계	 Yokohama International Port Terminal	Florian Beigel계획안-경사 통한 대지연장, 도시와 자연 경계를 대립시켜 연결-스카이 매트라는 경계 부분을 설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경계영역에 점유시키기 위해 스카이 매트라는 경사면의 구조를 이용해서 대지를 연장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의 영역을 자연 속으로 침투시켜 둘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대립을 통해서 도시와 자연을 연결. FOA계획안-지형학적 표면의 연속성을 통해 도시와 바다경계 중재-지형학적 바닥면이라 불리는 연속된 영역을 중첩시키면서 중첩된 레이어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영역,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등의 터미널이 지니는 대립된 상황을 유연하게 다루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와 자연(바다)사이에는 중속적 관계가 무너지며, '지형학적 표면'의 연속된 영역 위에서 불확정적인 사건들을 수용한다. 이들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경계는 이미 계획안이 처한 상황적 조건 아래 그 형태가 물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
내부 풍경	경계의 상실	 Saishunkan Seiyaku Women's Dormitory: 경계의 상실	내부공간의 영역의 경계를 상실-도시의 거리와 같은 외부의 공간을 닮은 큰 내부공간 각각의 개실은 오로지 잠을 자는 공간으로 수면의 기능에만 적용된다. 이용자 대부분은 중간의 거실에서만 생활. 이곳에서 세면대, 조리대, 식탁, 휴게실, 책을 보는 곳, 화장실도 적나라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의자에 따라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간다. 거실은 공적공간이면서 사적공간의 가능성을 제시. 이것은 대상과 자신의 거리감을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조작이 가능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관계를 개인마다 다르게 정의.
	인식적 경계	 Police Box	사회 구조를 결정짓는 점유와 행위에 의한 경계의 인식-두 개의 벽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로 벽 사이에 외부로부터 격리된 사적인 공간을 만들. 파출소는 규모가 작고 복잡한 기능을 지닌다. 역은 매우 밀도 있게 사용되는 편이고 주변의 수많은 구조물들은 파출소를 더욱 작아 보이게 한다. 구조물의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현대적 랜드마크를 창출하고 싶었다. 이러한 인식적 경계는 랜드스케이프 개념의 구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상적 행위들에 의해 규정되는 현상들을 발견하면서 구체화된다. 10)
내부 풍경	프로그램 patchwork로 복잡한 요소 병치	 Toyo Ito의 Sendai Mediatheque	내부 도시조직을 자연의 은유로 치환-'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곳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건물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자연과 연관된 원시적인 물체' 즉, 건축의 존재를 입증하는 건축물과 무형의 존재인 프로그램이 '내부의 풍경'을 이루며 통합되기를 의도했다. 이는 내부의 풍경을 유리면을 이용하여 외부로 노출시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리면을 통해 중첩되는 허상의 이미지들을 통해 달려진 사적 영역을 만드는 유동적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불확정성 추구

불확정적 공간은 가변적 요소와 시간 요구에 의해서 공간이 합리적인 공간의 규모와 성격을 갖게 된다.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모더니즘 개념의 공간이 현대 사회의 인터넷 정보매체에 의해서 한정적인 성격의 공간에서 가변적인 형태의 시스템에 의한 복합적이고 상대적인 공간이 요구되어진다.

① 프로그램의 불확정성(복합성 및 가변성)

현대 건축은 복합적이고 가변적이며 불확정적인 프로그램을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상태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프로그램에 의해 공간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공간이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고 서로 반전되기도 하는 프로그램간의 상호작용과 간섭에 의해서 프로그램 스스로 진화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 불확정적 특성은 내·외부의 영역, 도시와 건축, 건축과 대지 등의 관계와 경계에 대한 불확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공간이 내부로의 관입, 상호작용, 전이 등의 관계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FOA의 요코하마 국제항만 터미널 계획안의 경우 연속되는 바닥 판위에서 기능에 따른 점유의 형태를 미리 한정하여 물리적인 경계를 두는 대신 소수의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배치, 프로그램의 유동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서 여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의 프로그램 다이어그램들을 생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써 건축을 제안하였다.



<그림 1> 상황에 따라 바뀌는 불확정성을 수용

② 비움을 통한 불확정성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불확정적이고 늘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일시성과 고정된 물리적인 장소를 점유하고 그곳에 놓여 있는 건축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특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있다. 이처럼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가능성은 건축과 도시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에 있다.¹¹⁾ 불확정적 특성의 표출 방법으로써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성격이 모호하여 정의 내릴 수 없으며, 공허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점유되지 않은 빈 공간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빈 공간은 자연을 담는 요소로 남겨진 곳이기도 하다. 과거 서구 건축에서 자연은 전체를 완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대 건축에서는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과 건축을 대등한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건축물이 자연의 일부로 작용되면서 자연의 본질을 드러내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표현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건축행위

에서 자연을 담은 void 공간의 창출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빈 공간을 가장 중요한 '건축적 재료'로 보는 것은 그것의 자연적 가치가 아닌 매우 추상적이고 확산된 요소를 지닌 그리고 행태적인 것을 벗어난 '빈 공간'의 애매모호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¹²⁾」 빈 공간의 '애매모호함'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확정적 특성과 결부되어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건축적 흐름이기도 하다. 오브제의 성격을 없애는 일, 그리하여 비 공간적인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건축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랜드스케이프와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주어진 지형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공간을 지형적 공간이라 부른다면 필연적으로 이러한 공간은 땅이 갖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비 영역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¹³⁾ 사물 자체보다는 빈 공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사물사이에 존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Desert Plaza의 거대한 사이트에서는 풀, 물, 돌, 나무, 철 등의 재료의 요소화로 분절된다.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다양한 요소로 분절된 공간만을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의해 용도가 정해지며,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광장이다.



<그림 2> <비어있음>으로 존재하며 다양성이 잠재된 광장

③ 동선의 불확정성

과거 건축가들은 보통 동선을 고정시키고자 하지만 사용자들은 시간에 따라 그의 새로운 동선을 만들고자 한다. 과거의 고정된 계획과는 달리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서 다양한 동선의 구현이 가능하며 다른 상황들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동선의 선택은 사용자측의 참여로 불확정적인 내부 공간의 요소들로 인하여 사용자의 연속적이며 주관적인 심리반응을 유발한다. 이러한 동선의 불확정성은 주체가 이동함에 따라 시간 속에 존재하는 공간과 형태의 불확정적인 체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시적풍경구축을 위한 특성

1) 시적인 풍경에 대한 열망

랜드스케이프를 통한 시적인 풍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건축적 관심이 생태적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시대적 상황과 관계가 깊다. 이것은 현대 도시에서 픽처레스크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도시적 구성물을 인간의 시각에 의한 풍경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요소는 도시와 자연과의 연속성을

11)Manuel Gausa, Land Arch, Quaderns, 1997, p.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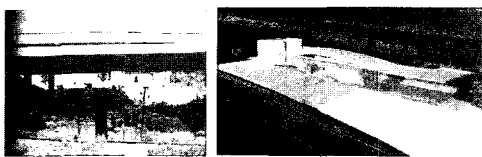
12)김광현, 건축과 자연, 이상건축, 9907

13)Manuel Gausa, op.cit., p.220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적 스케일로의 접근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랜드스케이프의 개념의 대두는 환경에 대해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환경에 대해 가장 시각적인 표현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둘째, 근대화가 소실한 녹색의 이상적이며 전원적인 이미지가 조화된 도시의 상을 구현하도록 하는 건인의 역할이다.

2) 풍경으로서의 건축

현대도시에서 랜드스케이프라는 의미는 도시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더 이상 근대의 조경도 아니고 현대의 자연도 아니다. 랜드스케이프는 '풍경'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며 그 의미를 가장 함축적이고 다양하게 드러낸다. '풍경'은 자연을 대하는 인식 방법이고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자연의 속성에 주목하며, 오브제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풍경으로서의 건축을 지향한다. 헤이리 아트벨리에 건축된 커뮤니티 하우스는 헤이리가 추구하고 있는 불확정적공간과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설계지침을 이상적으로 따르고 있는 사례이다. 반사 유리로 마감된 마을 쪽을 향해 있는 입면은 내부의 수직부채를 감추고 풍경 위에 떠 있는 구조체를 강조하고 있다. 건물 외벽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흐리면서 그 자체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게 하는 풍경으로서의 건축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풍경으로 존재하는 커뮤니티하우스

(3) 대지미술의 대두에 따른 특성

1) 대지미술

근대 이후의 자연과 인간으로 이원화된 사고방식은 환경의 파괴를 야기하였으며 건축과 경관의 통합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전환에 대한 단서를 대지미술(Land Art)에서도 제공해주고 있다. 1968년 10월 뉴욕 드완화랑에서 몇몇의 작가들이 'Earth-Work'라는 이름으로 공식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자연을 직접적인 작업의 소재로 사용하여 예술에 접목하려 하였는데, 이 전시회 이후 자연, 특히 경관을 예술적 오브제로 사용한 예술을 '대지미술'이라 불리게 되었다. 대지미술은 1960년대 말에 현대 미술의 전개과정에서 추상미술에 밀려 실종된 듯한 자연을 재생하려는 움직임으로 대두된 예술운동이다. 대지예술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맺음에 있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대지예술은 그 형식과 개념에 있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고려하였으며, 장소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대상으로 제시된다.

2) 건축적 특성

대지예술가들에게 있어서 랜드스케이프는 작품을 위한 특정한 장소이자 표현의 재료가 된다. 그들에 의해서 랜드스케이프는 관조의 배경, 경치의 역할로부터 시간과 자연에 흐름에 따라 사건들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발생하는 물질의 장으로 변모된다.¹⁴⁾ 대지 예술의 작품개념은 객체(예술 작품으로서의 풍경)와 주체(풍경을 인식하는 인간)를 통합시키는 것에 있다.¹⁵⁾ 대지예술이 갖는 지형적 건축과의 관련성은 비단 그 소재인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미에 더 큰 비중이 있다. 즉, 기존의 예술방법과 형태를 거부하며 자연에 대한 요구와 함께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지형적 건축'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① landform

피터 아이젠만은 'City of Culture'에서 'Chevrons'와 지그재그라는 낯선 끌개에 의해 진동하는 '스타카토 Landform'¹⁶⁾를 사용했다. 이 프로젝트는 인접한 중세도시의 지역적 상징으로서 생성의 메타포 뿐 아니라 주변 랜드스케이프를 들어 올리는 Landform으로써 형상과 지면을 동시에 생성한다.

찰스 쟁크스는 <그림 4>에서 자기조직화에 의한 실험을 통해 일련의 'Landform'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여준다. 땅은 쟁기질로 인해 밀리는 대로 자기 유사적 형태로 자기 조직화한다. 파동은 호수, 랜드스케이프, 두 방향으로 구부러진다. 이는 모래와 자갈 고유 자기조직의 결과이며 뒤틀린 새 랜드스케이프의 언어이다.¹⁷⁾ 이것은 유기체와 유사한 자기 변환의 상태 때문에 살아있는 물질, 초유기체와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며 마치 자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림 4> 찰스 쟁크스의 landform 실험

② 지형적 건축

대지예술의 영향으로 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땅'의 속성을 탐구하고 그것을 공간 구축의 핵심으로

14)홍지학, 현대건축에서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구성하는 의미의 층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 제 22권 22호, 2002,10. 26, p.509

15)관찰자와 관찰대상을 분리시키는 근대적 인식론에 대한 회의는 예술작품의 관람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다. 대지예술가들은 작품을 독립성이 부과된 오브제가 아니라 물리적 구조물과 그것을 관찰하는 관람자까지 포함하는 상호 작용하는 체계로 보았다.

16)찰스 쟁크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 경향으로 건물 타입으로서의 landform과 waveform의 창발을 언급한다. 이를 끊임없이 이동하는 땅으로서의 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메타포로 해석한다. 이러한 건축에서 진로는 거대한 스케일로 살아온다.

17)Charles Jencks, New paradigm in Architecture, p.215

삼으며, 건축을 인공적인 슬라브를 설치하는 구축적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형의 재현'으로 보며 지형적 건축으로 발전하게 된다. 개념상으로 기존의 땅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되살리고자 한다. 지형적 건축에서는 '땅'이 보여주는 시간의 흔적-땅의 역사성-을 건축적 구축행위를 통해 나타내기도 '땅'이 가지는 의미를 다양하게 조명하기도 한다.

▶ 땅의 역사성

'Fossar de les Moreres'의 경우 사이트는 과거 까탈루냐 전투 사상자들의 무덤이 있던 곳으로 건축가의 의도는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장소가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광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작은 벽돌 광장으로 상징화하였고 광장은 역사적인 장소로 거듭나게 되었다. 'Igualada Cemetery'에서 땅의 절삭된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은 과거에 채석장으로 쓰였던 사이트의 지질학적인 특성을 탐구하고 땅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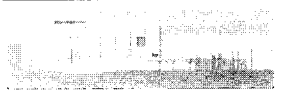





<그림 5> Igualada Cemetery 의 단면과 땅을 절개하는 모습

▶ 경사진 판에 의한 대지의 연장

바르셀로나 몬주이크 언덕위에 조성된 Botanical Garden은 삼각형형태의 그리드를 이용해 경사를 자연스럽게 반영한다. 삼각형으로 분절된 공간은 상승하는 지형과 휴식을 위한 평평한 지형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지형적 건축에서는 건물과 땅이 가지는 기존의 관계를 탈피하며, 경사진 바닥면들이 건축물의 바닥판으로 연장되면서 대지의 연장이기를 추구한다. 이를 통해 자연과 건축은 소통하며 경계가 소멸되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성질을 가진 또 하나의 영역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예로서 Rem Koolhaas의 Educatoium과 MVRDV의 Villa VPro를 들 수 있다. Educatoium은 교육과 공장을 합성한 개념으로서 이 건물은 경사진 판을 통해 상승시키고 그 판이 외부에 드러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판은 대지에서부터 시작되어 건물 내부로 전개되며 대지를 연장하고 있다. 한편, Villa VPro는 Educatoium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물의 각 층의 바닥판은 램프, 이어진 판, 넓은 계단판으로 연결되어 옥상정원까지 확대된다. 옥상정원은 개념상으로 대지에 있었던 수목을 건물이 지어진 후에도 보존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이상과 같이 경사진 판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형의 속성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대지의 연장이자 연속성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표 2> 경사진 판에 의한 대지의 연장

		
Educatoium(Rem Koolhaas)	Botanical Garden의 휴식 공간	상승지형과 평평 지형과의 관계
		
Villa Vpro		

▶ 삽입에 의한 지면의 연속

삽입은 기존의 지형에 이질적인 성격의 레이어를 첨가시키는 기법으로서 기존의 사이트에 존재하던 도시 컨텍스트와 새롭게 삽입된 공간 사이에서 특정한 행위를 발생시킨다. 이 기법은 모더니즘 시대에 존재했던 분화되지 못한 빈 공간이나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거부한다. 삽입은 도시의 연속으로 존재하면서 그 연속성을 깨기도 한다. 여기에서 삽입은 기념비와 같은 오브제를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그 특성 안에서 환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의 삽입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주변의 대지의 컨텍스트와 공간은 일체화된다. Olympic Velodrome & Swimming Pool은 거대한 지형에 두 개의 기하학적인 요소인 수영장과 사이클 경기장을 삽입시켜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서 건물은 마치 지형의 연속처럼 보이고 있다. 두 개의 거대한 볼륨을 요구하는 이 건물은 베를린 외곽지역에 계획된 프로젝트로 Dominique Perrault는 도시와 오픈스페이스를 교차시킨 것으로 거대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매스를 지면 아래로 침식시켜 오픈스페이스를 생성시켰다.



<그림 6> 지면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Olympic Velodrome & Swimming P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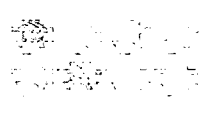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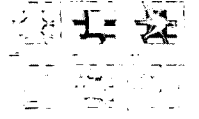

<그림 7> 두 개의 거대한 매스와 지상의 오픈스페이스

▶ Patch에 의한 건축적 풍경



패치(patch)는 원래 옷의 해진 부분에 대한 형질조각을 의미하는데 조각이나 파편, 작게 구획된 땅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건축에서의 패치는 땅을 작은 요소들로 나누어 계획하거나 기존의 땅에 건축적인 장치의 새로운 요소를 덧대어 구성하는 기법을 말한다. Desert Plaza의 경우 패치기법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몇 가지 요소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배치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Almansa의 'Avenida Romon y Cajal

의 개발'의 경우 수평적인 대지를 몇몇의 다른 성질을 가진 요소별로 분절하여 구성하고 있다. 다른 재료가 직접적으로 맞붙어 있는 부분에서 긴장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패치기법은 각기 다른 요소들을 서로 인접시켜 구성하는 것에서 효과가 창출되며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맞닿아 있는 모습은 건축적인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표 3> Desert Plaza의 패치기법

재료의 분포	사이트분석	재료의 재 분포
		

<표 4> Patch에 의한 건축적 풍경

Desert Plaza패치사용기법	Avenida Romon y Cajal의 이질적 재료
	

(4) 이분법 사유의 붕괴에 따른 경계의 소실

1) 이분법 사유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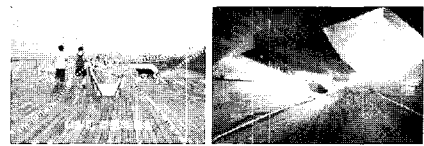
90년대 이후 최근의 현대 건축에서는 건축과 경관의 관계가 모더니즘처럼 이원화되어 분리되거나 해체주의처럼 모순대립으로 인해 파편화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경계의 소멸'이다. 이는 문화·사회·예술 전반에 걸쳐 hybrid를 추구하는 흐름처럼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각기 다른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분법적 논리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건축과 조경으로 분리되던 두 분야는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양자를 접목하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내 외부 경계의 소멸로서 나타나게 된다.

2) 경계의 소멸을 통한 연속성 추구

건축과 환경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을 통해 외부의 질서와 맺는 관계 방식이 중요해졌다. 현대 건축가들은 이러한 과제를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통해 이분법 구도의 설정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분법적 구도의 설정으로 현대 도시 문제에 대응하는 건축가들은 경계에 대한 문제를 중요시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사고를 전개하기도 한다. 이것은 개념을 통해 랜드스케이프 건축이 이분법적 논리를 지양하고 경계를 소멸시킴으로써 건축과 경관의 통합, 내-외부공간의 통합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즉, 건축과 자연으로 이분되던 것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다른 영역을 중재하는 방식을 통해 자연과 일체화되려는 유기체적 특성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① 물리적 요소의 경계 상실을 통한 연속성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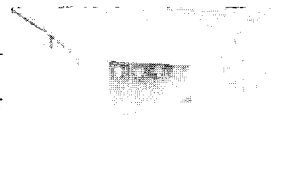
요코하마 여객 터미널의 경우에서도 이분법적 논리의 지양을 통해 경계 상실을 추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항구와 공원, 도시와 바다의 대립을 중재하고 있으며 항구는 거대한 인공의 건축적 지형으로 구축되었고 이곳에는 다양한 유동적 흐름이 존재하는 판의 기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판은 바닥이 되고 천장이 되기도 하며 벽이 되어 물리적인 경계를 없애고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따라서 규정되지 않고 흐르는 유동적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구현해내고 있다. 하나의 특성으로 규정되어지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랜드스케이프적 개념을 구현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형적 건축의 특성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예로서 지형과 건축의 일체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유동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요코하마 여객터미널(FOA)

② 내-외부의 경계 상실에 의한 연속성 추구

도요이토의 「Ota-Ku Resort Complex in Nagano」에서는 내부와 외부의 개념의 소실로서 자연과 건축의 일체화를 추구하고 있다. 유리로 된 건물의 입면은 양측의 시선을 투과시키면서 양방향으로 공간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 소멸을 통한 유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건축물이라기 보다는 앞과 뒤에 있는 자연을 매개해 주는 경계요소로서의 또 다른 자연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내부-외부의 연결, 도시와 자연의 연결, 자연과 건축물의 연결로서 각 영역성이 섞이고 소통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관찰자는 자신이 속한 영역을 의심하게 되며 결국 그 영역을 재정의하게 만든다. 즉,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사물의 정체성을 불확정하게 만들고 사용자들에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전략으로서 외부에서의 점유자는 내부처럼 편안함(외부의 내부화)을 느끼고 내부에서는 열린 랜드스케이프에서 고립된 것처럼 노출(내부의 외부화)되어 불안한 상황을 인식하게 함으로서 관습적 인식을 탈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9> Ota-Ku Resort Complex in Nagano

3.3. 랜드스케이프 건축적 특성 구현 방법

랜드스케이프 개념은 과학, 예술, 인문,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받으며 대두되었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이러한 시대적인 여러 흐름과 이에 따른 특성을 건축적으로 구현하며 나타났으며, 사례를 통해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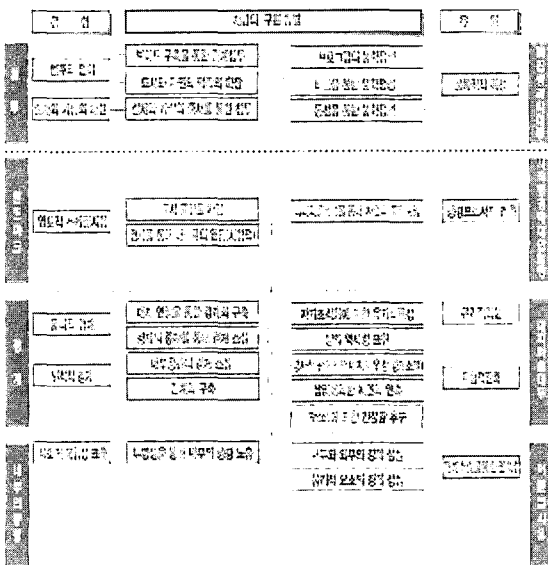
<표 5> 시대 흐름의 영향에 따른 랜드스케이프 개념 구현 방법

유형	작품	개념의 특성	개념의 구현 방법
복잡성과 학 대두	불확정적 특성	요코하마 여객터미널	연속된 바닥 위에서 예측 불가 능하며 다양한 행위 수용
		Desert Plaza	광장을 비어둠으로써 다양한 잠재력을 수용
		요코하마 여객터미널	사용자에 의한 동선의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함
시적 풍경에 대한 열망	풍경으로서의 건축	-	외피투명성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도입
대지 미술 대두	유기적 특성	Landform 찰스펙크스	땅의 입계에서 자기유사적 형태로 자기조직화의 특성을 보여줌
		Igualada Cemetery	땅의 질서된 단면을 드러냄으로써 땅의 시간성을 보여줌
	지형적 건축	Botanical Garden	경사진 바닥면에 의해 대지의 연장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경계 소멸
		Velodrome&Swimming Pool	매스를 지면 아래로 침식시켜 지상에 오픈스페이스를 생성시키며 지면의 연속을 추구
		Desert Plaza	여러 요소들을 분석하여 사이트위에 재배치
		Avenida Romony Cajal	대지를 여러 성격으로 분할, 각기 다른 재료를 인접시킴
이분법 사유의 붕괴	경계 소실 통한 연속성	Ota-ku Resort Complex in nagano	정면과 배면 모두 유리로 되어 양 방향으로 공간의 확장을 통해 내부, 외부의 경계 소실
		요코하마 여객터미널	바닥, 천장, 벽등의 경계와 지형의 경계를 상실

4. 결론

이상과 같이 Eduard Bru의 분류유형에 따른 랜드스케이프 개념의 건축적 구현방법과 시대 흐름의 영향에 따라 표현된 랜드스케이프 개념의 건축적 구현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제기

<표 6> 랜드스케이프 개념의 건축적 구현 방법



<표 7> 랜드스케이프 특성의 재-유형화

유형	개념의 구현 방법	재-유형화		
Eduard Bru 분류 유형	침투	보이드구축 통한 경계침투	침투	
		도시와 자연의 맥락의 확장에 의한 영역성 침투	침투	
	랜드마크	가상의 재현	실제와 가상의 재현의 중재물 통한 침투	
		영토적 스케일 지향	도시 풍경을 차경 대지의 연장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지향	
경계	물리적 경계	대지연장을 통한 경계 대립		
	인식적 경계	경계의 중재		
내부의 풍경	내부 복합성 표출	경계의 상실	경계소멸	
		경계의 구축	불확정성	
시대적 흐름에 따른 특성	복잡성과 학 대두	프로그램의 patchwork로 복잡한 요소의 병치	경관	
		프로그램의 불확정성	불확정성	
	시적풍경 열망	비움을 통한 불확정성	불확정성	
		동선을 통한 불확정성	불확정성	
	대지미술 대두	유기적 특성	외피의 투명성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도입	경관
			자기조직화의 유기적 특성	유기성
지형적 건축		땅의 역사성을 드러냄	유기성	
		경사진 판에 의한 대지의 연장→경계 소멸→연속성	구축의 연속성	
이분법 사유 붕괴	경계소실 연속성	매스삽입에 의한 지면연속	구축연속성	
		patch에 의한 긴장감 추구	경계구축	
		내부, 외부의 경계소실	경계소멸	
		물리적 요소의 경계상실	경계소멸	

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적 특성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공통적 개념 언어들을 추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랜드스케이프 개념의 건축적 구현 방식을 표현하는 언어들을 통해 보다 체계적 이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을 통해 랜드스케이프 개념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형은 각각 개별적인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서로 중첩되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랜드스케이프 개념의 구현 방법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는 사고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을 유사한 특성들끼리 분류하여 재유형화하면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duard Bru가 제시한 랜드스케이프의 4개의 유형과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각기 다른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 개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특성이 서로 유사하더라도 각기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어 설명되어지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침투, 경관, 구축의 연속성, 경계소멸, 불확정성, 유기성 등의 6가지로 재 유형화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Charlds Jencks, Landform Architecture-Emergent in the Nineties : Architecture Design Vol 67, 1997
2. Charles Jencks, New paradigm in Architecture
3. Eduard Bru, The long-distance Gaze, New Territorities, New Landscape, ACTAR, 1997
4. El Croquis 77(i)+99 : Kazuyo Sejima + Ryue Nishizawa, El Croquis Editorial, 2000

5. Manuel Gausa, Land Arch, Quaderns, 1997
6. 김종규, 랜드스페이스, 건축과 환경, 9605
7. 김광현, 건축과 자연, 이상건축, 9907
8. 강형규, 현대건축의 인공화된 자연도입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5
9. 배우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난 경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4
10. 유승범, 현대건축에서 지형적 건축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2
11. 윤정원, '흐름'을 통해 '도시의 건축화'를 조직하는 체계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3
12. 홍지학, 현대건축에 나타난 landscape 개념의 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3
13. 황성희, 도요이토 건축의 신체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3
14. 배우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난 경계의 불확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3권 2호, 2003.10
15. 육광동, 판의 조작에 의한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2권 2호, 2002.10
16. 이인원, Landscape Architecture의 불확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5권 1호, 2005.10
17. 전상규, 자연과의 관계를 통한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4권 2호, 2004.10
18. 홍지학, 현대건축에서 랜드스케이프개념을 구성하는 의미의 층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 제22권 22호, 2002.10

<접수 : 2007. 2. 27>